

#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한 역사학자의 편견

## 하원호의 《식민과 제국의 길》 서평에 대한 저자의 입장

이재광

《이코노미스트》 기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한 역사학자의 편견? 하원호박사의 비판적 서평(본지 7월5일자(제239호) 28쪽)을 보고 내린 필자의 결론이다. 물음표를 추가한 것은 이 결론이 아직은 '잠정적'이라는 의미다. 필자가 비판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탓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 납득하기 어려운 '일본식' 조공체계론

필자의 비판을 살펴보자. 필자는 한 마디로 "출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그가 제시한 것이 세계체계론적 시각과 '일본식' 조공체계론의 수용이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계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내부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과 민족적 변혁의 움직임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평했으며, 또 "일본학자들의 조공체계론을 그대로 동아시아에 적용함으로써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그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체계론에 대한 것부터 보자. 세계체계론은 말 그대로 세계 전체, 특히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본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거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체계론은 그 이론의 시작부터 미시적 고찰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 이론가들의 비판의 표적이었다. 필자의 비판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내부 변수, 필자의 말에 따르면, '자주적 근대화 노력'과 '민족적 변혁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필자는 국가 내부 수준의 갈등을 주요변수로 취급했음을 밝힌다. 이는 조선뿐 아니라 일본의 자본주의 편입과정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강조점의 차이로 보인다. 필자는 내부 변혁과정 그 '자체'보다는 이른바 '외세'가 이 변혁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느냐는 점을 중시했다. 바쿠후의 위기, 메이지 유신, 대만침략, 조선개국, 러·일 전쟁 등 일본의 내적 변동에 '외세'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반면, 강화도조약에서 임오군란, 동학혁명, 갑신정변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내적 변동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각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모를까 '내적 변수를 간과했다'는 '비판'은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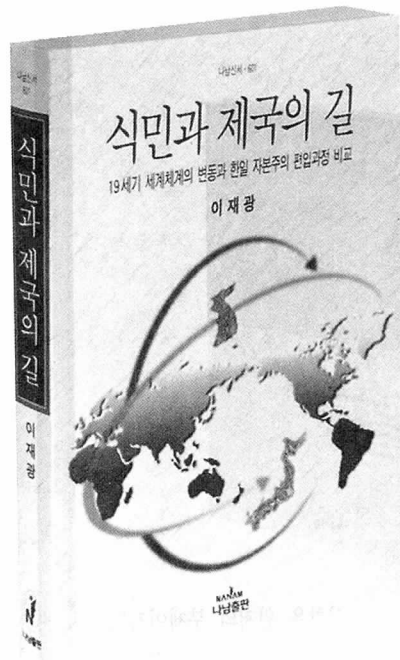
《식민과 제국의 길》 서평에서 필자는 이 책이 세계체계론적 시각과 '일본식' 조공체계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출발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내부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과 민족의 변혁 움직임은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조공체계론을 그대로 적용해 시도한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는 해석이다. 필자로서는 납득조차 하기 어렵다. 도대체 '일본식 조공체계론'이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에서 축적된 조공체계에 대한 연구 모두가 '일본식'인가, 아니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가 '일본식'인가. 필자는 결코 일본식 조공체계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미하는 바도 알지 못하겠다.

필자는 사실(史實)에 기초해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도출했을 뿐이다. 이는 '조공체계'로 불리는 정치·경제체제 역시 하나의 '세계체제'였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두 개의 세계체계론'으로 부를 만한 이 주장은 세계체계론의 이론적 맥락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필자가 인용한 학자들은 하마시타, 히메다·아베, 사사키 등 일본 학자에 그치지 않는다. 전해중, 유인선 등 국내 학자들은 물론 라이사위, 아리기, 질스와 프랭크, 아부-리그호드 등 구미 학자들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에 이른다. 특히 전해중과 유인선 등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서 시사받은 바가 많다.

### 편견의 논리에서 비롯된 '침소봉대' 식 비판

아무리 생각해도 필자는 필자가 주장한 '16세기 기원론'을 '일본식 조공체계론'으로 보는 듯하다. 논리를 보자. ① 16세기 중반 이후 일본은 더 이상 조공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② 이후 17세기부터는 중국과의 정식 외교관계가 없다. 따라서 ③ 일본은 이 조공체계에서 자율성을 얻게 된다. ④ 도쿠가와 바쿠후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이 자율성은 '타율적' 성격이 짙다. ⑤ 그리고 일본은 주변의 약소국 에조지와 류큐, 사쓰마를 병합하며 소(小) 중화체제를 형성한다. ⑥ 이것이 폐쇄적 민족주의를 탄생시켰으며 메이지 유신의 뿌리인 존왕론의 기초가 됐다. 필자가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그런데 일본 중세 및 근대사 연구가 미진한 탓인지 몰라도 필자는 아직 이같은 이론을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다. 필자의 비판은 책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얻은 '이미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닐까. 필자가 '한 역사학자의 편견'을 '잠정적 결론'으로 내린 것은 이같은 의구심 때문이다.

한편, 필자의 논리 전체를 보면 일본의 이른바 '우익' 사학계는 필자의 주장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매도다. 필자의 결론은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족주의적 사관을 갖는 사학자들은 이시이의 '외압차이론'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책의 가장 중요한 결론, 즉 "외세의 지원이 있었기에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8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모울더의 '상대적 자율론'조차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 그들이 아닌가. 필자의 비판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인'과 '우연'을 연결시키며 맺은 필자의 결론은 지극히 당혹스러운 것 이어서 유감이다. 필자는 물론 일본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자의 연구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주어진 사실(史實)과 사회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국적은 오히려 객관적 연구에 방해물일 뿐이다. 필자가 연구의 끝맺음을 '우연'으로 한 것은 나의 국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8년간의 연구 끝에 필자는 한일 근대사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연'의 문제였다. 사회과학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으며 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필자의 '철학'도 '형이상학'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빼고 싶지 않는 주제였기에 '맺음말'에서, 그것도 아주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분량도 기껏 1~1.5쪽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족에 가까운, 불필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마치 최종결론을 '우연'으로 돌리는 것처럼(그것도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다. '편견'의 논리에서 비롯된 '침소봉대' 식 비판이다.

### '뜨거운 감자' 론은 연구 미진한 사학계 핑계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동아시아 3국의 자본주의 편입과정 연구는 결코 '뜨거운 감자'가 아니며 그래서 안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는 비단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에 못지 않은 방대한 연구가 있다. 왜 한국 사학계에서만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되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분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연구가 미진한 사학계의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학도들이 치열하게 매달려야 할 연구를 사회학계에게 빼앗겼다는 것에는 반성의 여지도 있다. 이미 늦었지만 하루 빨리 '진검승부'를 내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필자는 '시스템'의 번역어를 모두 '체계'로 사용했음) ◆